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예레미야 20:9)

절망의 정글에서 피어나는 아마존의 소망, 산타 실비아의 기적을 기대하며

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아마존에서 문안 인사드립니다.

미전도 종족 마을인 잠비라강 유역의 산타 실비아(Santa Silvia)에
예배당 건축과 학교 증축을 위해 다녀온 지도 어느덧 3 주가 훌쩍 지났습니다.
그동안 밀려든 여러 사역의 일정들로 인해 이제야 현장의 긴박한 소식과
간절한 기도 제목을 동역자님들께 나눕니다.

1. 연합과 협력의 은혜 (의료 및 교환 프로그램)

지난 7 월 7 일부터 11 일까지,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온 안과 의료팀과 함께 진료 사역을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이번 만남을 통해 향후 아마존의 안과 질환자들을 어떻게 더 실질적으로 도울지 논의하는 귀한 교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오는 9 월 22 일부터 약 3 주간,

부산 고신대 의대생들과 현지 주립대 의대생들의 교환학생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이를 위해 고신 복음병원과 현지 이키토스 병원(로레토 주립병원) 간의 MOU 협정식을 준비하며

관계자들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습니다.

2. 정글 사역의 눈물, 그리고 다시 품는 마음

우라리나 부족 학생 80 명을 이끌고 사상 최초로 페루 독립기념일 행진(나우타 지역)에 참여하려던 계획은

재정적 한계와, 평생 정글 밖을 나가본 적 없는 자녀를 걱정하는 부모들의 거센 반대로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우라리나 종족을 접촉한 지 23 년, 산타 실비아 마을에 들어간 지 15~16 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이들의 변화의 길은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산타 실비아 예배당 건축을 위해 150 마력 보트를 타고

왕복 4 일간의 험난한 뱃길을 헤쳐 들어간 현장 역시 쉽지 않았습니

다. 미리 구입해 둔 건축 자재 중 일부가 도난 당했고, 이미 값을 전액 지불한 자재들은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았으며...

결국 제가 직접 정글 안에서 나무를 나르며, 깨어지고 무너진 약속들을 온몸으로 수습해야만 했습니다.

끝없이 요구하기만 하고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는 이들의 모습에

그동안 바쳐온 나의 삶과 눈물이 한순간에 헛수고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여러 사역이 주는 중압감까지 더해져 이제는 ‘포기하고 싶다’라는 깊은 낙심과 절망감이 밀려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주님은 예레미야 20 장(9~13 절)의 말씀을 제 마음에 부어주셨습니다.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견딜 수 없다"던 그 선지자의 고백이 제 고백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제 식어진 마음을 다시 동하게 하였고,
내 힘이 아닌 오직 주가 주시는 은혜의 힘으로 다시 일어나
예배당과 사택 일부, 섹터 탱크(정화조) 공사를 마치고 학교 증축을 위한 기틀을 닦아놓고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3. [기도와 후원 요청] 12 월, 눈물로 뿌린 씨앗이 열매를 맺습니다

저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다가오는 올 12 월 3 일부터 9 일까지,
미전도 종족 우라리나 산타 실비아 마을에서는 선교 역사에 길이 남을 놀라운 은혜의 시간들이
펼쳐지게 됩니다.

이 일들을 순탄하게 준비하기 위해 저는 8 월 말이나 9 월 초에 다시 정글로 들어갑니다.
이 시기는 강물이 바닥을 드러내어 온갖 장애물들이 드러나고,
말라리아와 열대병이 기승을 부리는 가장 혹독한 때입니다.

그러나 이때 들어가 예배당과 남은 건축을 온전히 마무리 하여야만
12 월의 역사적인 사역들이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마침내 올 12 월, 산타 실비아 에서는 다음과 같은 기적들이 열리게 됩니다.

1) 예배당 헌당식 및 증축 학교 오픈식:

그동안 선교사들과 동역자들의 눈물과 땀, 기도로 지어진 예배당이 헌당되고,
아마존 아이들의 꿈이 자라날 학교 증축 오픈식이 거행됩니다.

2) 첫 고등학교 졸업식과 진학:

페루 문교부에 공식 등록된 산타 실비아 '대한민국 학교'에서 역사적인 첫 고등학교 졸업생
5 명이 배출됩니다.

저는 이 아이들을 다시 정글의 그늘 속에 주저앉히고 싶지 않습니다.
정글에 그대로 남겨진 아이들의 삶이 결국 어떻게 원초적인 본능과 가난에 갇혀 흘러가고
마는지...
많이 보아왔고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졸업과 동시에 아이들을 세상 밖 '나우타'로 데리고 나와
나우타에 있는 전문학교에 진학시켜 아마존의 미래를 바꿀 영적 리더로 키우려 합니다.
아직은 맨발로 흙바닥을 디디며 살아가는 거친 아이들이지만...

이들 역시 주님의 보혈로 값 주고 사신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들입니다.
비록 문명의 혜택은 비껴갔을지라도, 결코 비껴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 아이들에게
있음을 믿습니다.
아이들의 영혼 속에 새겨진 하나님의 형상을 반드시 회복시켜 천국의 자녀로 세우고 싶습니다.
그것은 먼저 주님의 자녀 된 우리가 마땅히 짊어져야 할 사랑의 빛이자 거룩한 특권입니다.

진학 예정 졸업생 명단:

- 1.Esmita Clement Castanon (여, 20 세)
- 2.Monica Ojaicate Clement (여, 18 세)
- 3.Martha Ahuite Ojaucate (여, 17 세)
- 4.Ricardo Macusi Ignacio (남, 17 세)
- 5.Jose Ojaicate Clemente (남, 18 세)

아이들이 정글 밖 나우타에서 안전하게 숙식하며 학업에 전념하는 데에는 매월 1 인당 약 350 달러의 재정이 필요합니다.

평생 정글에 갇혀 살던 이 아이들에게 '미래'를 선물하는 이 경이로운 여정에 거룩한 물질과 기도로 동참해 주십시오.

3) 세례식, 최초의 성찬식, 그리고 어른 부흥 집회

이번 12 월 사역에는 세례식과 마을 역사상 최초의 성찬식이 거행됩니다.

또한, 우라리나 종족 역사상 처음으로 3 일간 '어른들을 위한 부흥 집회'를 개최합니다.

- **어른 부흥회 강사:** 부산에 있는 수영로교회 에서 파송 되어 라틴 아메리카 전역에서 신실하게 사역하시는 김성환 선교사님(콜롬비아 사역)을 주강사로 모십니다.
- **어린이 부흥회 강사:** 페루 어린이전도협회(CEF) 디렉터이자 가장 신실한 사역자로 인정받는 에르메스 판도 록사나 아레날레스(Hermes Pando Roxana Arenales) 목사님과 사모님 내외분을 주 강사로

또한 동역자님들이 기도로 키워내신 영적 열매이자 아르헨티나 신학교를 마치고 돌아온 마가릿파 전도사가 이번에도 역시 함께 사역에 동참합니다.

미전도 종족 우라리나 전역에 성령의 불이 임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4. 나우타 지역의 새로운 비전과 확장

1) 성탄 빵네똥 봉사와 다음 세대 교회 개척

올 12 월에도 어김없이 성탄의 기쁨을 나누는 빵네똥(Panetón) 빵 나눔 봉사를 진행합니다.

특히 이 시점에 맞추어 가슴 벅찬 새로운 교회를 시작하려 합니다.

저희 선교부에서 어릴 적부터 말씀으로 키워내어 아르헨티나 신학교를 당당히 졸업하고 돌아온 마가릿파 전도사를 주축으로, 나우타 지역에 어린이와 청소년만을 위한 교회를 개척하여 엽니다.

현지인 사역자가 현지 다음 세대를 살려내는 이 감격스러운 사역을 위해

개척 장소 섭외비와 사역에 필요한 비품, 재료들이 채워지도록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2) 내년도(2027 년) 건축 비전

다가오는 2027 년 내년에는 나우타 지역에 **국제 학교와 새로운 예배당 건축**을 시작하려는 장대한 비전을 품고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고자 합니다.

아마존의 이 위대한 기적에 동참해 주십시오!

그동안 수없는 배신과 낙심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일하고 계셨고, 앞으로도 일하실 것입니다.

신학교를 졸업하고 돌아온 마가릿파 전도사가 그 증거이며,

지금도 산타 실비아 마을의 교사와 사역자로 충성하고 있는
우리나라 종족 추장의 아들 이었던, **로날 전도사**가 바로 그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이제 정글 마을 최초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전문학교로 진학할 5 명의 아이들이 우리의
새로운 희망입니다.

“나는 심었고 아블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고전 3:6)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실 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복음을 심고, 그 심은 복음의 씨앗에 물을 주어 자라게 할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부디 하나님의 이 거룩한 초청을 외면하지 마시고 함께 동참해 주십시오.

과거 안드레가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지만, 한 아이의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찾아 주님께 드리며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고백했을 때,
오천 명을 먹이고도 남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의 작은 헌신이 비록 정글의 거대한 가난 앞에서는 작아 보일지라도,
예수님의 손에 들려질 때 아마존을 뒤흔드는 기적이 될 줄 확신합니다.

이 풍성한 기적과 은혜가 동역자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 위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12 월의 수많은 사역과 내년도 나우타 국제학교 및 예배당 건축을 위한 막대한 재정의 산들도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넉넉히 넘을 수 있도록 간절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늘 눈물의 기도로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후 2026 년 7 월 15 일
또 하나의 땅끝 페루 아마존 한 모퉁이에서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며 예비하는
부족하고 연약한 종
한원강, 경애 선교사 드림

아마존 선교 사역을 위한 기도 제목

1. 8 월 말 ~ 9 월 초 산타 실비아 정글 재진입과 건축 마무리

1) 안전과 건강:

강물이 바닥을 드러내는 건기라 뱃길 이동이 수배로 힘들고,
말라리아와 열대병이 기승을 부리는 시기입니다.
오가는 여정의 안전을 지키시고 선교사의 건강을 보호하소서.

2) 건축의 순조로운 마감:

12 월에 있을 사역들을 위해 예배당과 미진한 건축 일체(학교 증축 등)가
하나님의 공급하심 속에 순탄하게 마무리되게 하소서.

2. 9 월 22 일 ~ 한 달간 고신의대 교환학생 프로그램 및 MOU 협정:

1) 부산 고신대 의대생들과 현지 주립대 의대생들의 교환학생 프로그램이 차질 없이
진행되게 하소서.

- 2) 고신 복음병원과 로레토 주립병원(이키토스 병원) 간의 MOU 협정식이 순조롭게 체결되어,
향후 아마존 의료 선교의 견고한 네트워크가 구축되게 하소서.

3. 12 월 3 일~9 일 첫 주간 산타 실비아 역사적인 은혜의 사역들

- 1) **예배당 헌당 및 증축 학교 오픈:**
눈물과 땀으로 세워진 성전과 학교가 아마존 땅의 거룩한 영적 기지가 되게 하소서.
- 2) **성령의 불이 임하는 집회:**
우라리나 부족 역사상 최초로 열리는 3 일간의 ‘어른 부흥 집회(김성환 선교사 인도)’와 대대적인 ‘어린이 사역(에르메스 판도 목사 인도)’을 통해 부족 전역에 회개와 영적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 3) **세례식과 최초의 성찬식:**
새롭게 주님을 영접한 이들에게 베풀어질 세례식과 첫 성찬식 위에 성령의 큰 감격이 임하게 하소서.

4. 첫 고등학교 졸업생 5 명의 전문학교 진학

- 1) 정글 마을 최초로 배출되는 5 명의 졸업생(에스미타, 모니카, 마르타, 리카르도, 호세)이 나우타 전문학교로 무사히 진학하여 아마존의 기독교적 리더로 자라나게 하소서.
- 2) **장학 후원자 연결:**
아이들의 안전한 숙식과 학업을 위해 매달 1 인당 350 달러의 재정이 필요합니다.
5 명의 아이들에게 사랑의 손길이 조속히 연결되게 하소서.

5. 12 월 나우타 지역 빠네통 봉사 및 다음 세대 교회 개척

- 1) 매년 진행되는 성탄 빠네통(뽕) 나눔을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이 정글 깊숙이 흘러가게 하소서.
- 2) 아르헨티나 신학교를 졸업하고 돌아온 ‘마가릿타 전도사’를 주축으로 세워질 나우타 어린이·청소년 전용 교회 개척 위에 기름 부어 주소서.
(교회 장소 섭외 및 사역 비품, 재료 구입을 위한 재정이 넉넉히 채워지게 하소서.)

6. 내년(2027 년) 비전 나우타 국제학교 및 예배당 건축

- 1) 2027 년 나우타 지역에 국제학교와 새로운 예배당 건축을 시작하려는 큰 비전의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가로막는 막대한 재정의 산들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채워지게 하소서.

7. 선교사님의 영육 간의 강건함

- 1) 현지인들의 불성실함과 거친 사역 환경 속에서도,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부어주셨던 ‘마음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소서.
낙심치 않고 끝까지 인내하며 영혼들을 품을 수 있는 영적 아버지의 마음과 영육의 새 힘을 날마다 공급 하소서.